

'RE100 산업단지' 조성 관련 동향 및 향후 전망

I. 들어가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으로 'RE100(Renewable Electricity, 재생 에너지 100%) 산업단지'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RE100 산업단지'란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입주기업의 RE100 달성을 뒷받침하는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실(정책실)은 2025. 7. 10. 위 공약에 따라 ① RE100 산업단지 확대를 위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② RE100 산업단지 내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③ 연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이하 대통령실과 관계부처를 통칭하여 '정부')는 2025. 7. 16.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이하 '관계부처 합동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RE100 산업단지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주요 동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 시사점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II. RE100 산업단지 관련 정부 정책의 동향

관계부처 합동 TF의 위 1차 회의에서는 ▲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 산업단지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항을 나누어 각 분야별로 예상되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에너지 고속도로'가 추진되어 RE100 산업단지들에 재생에너지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권에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전국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고압직류송전(HVDC)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Related Areas

부동산 건설

Contact

최관수 변호사
02-528-5796
kschoi@yulchon.com

유관동 변호사
02-528-5490
kdyoo@yulchon.com

신기훈 변호사
02-528-6188
khshin@yulchon.com

이에 더하여, 정부는 호남권이나 울산과 같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을 위주로 산업단지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생산지로 찾아가는, 이른바 '지산 지소(地産地消)' 방식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이재명 대통령은 2025. 7. 10. RE100 산업단지에 관하여 “규제를 과감히 풀고, 전기요금 감면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RE100 산업단지에 첨단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인센티브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2025. 7. 29.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PPA(직접전력거래, Power Purchase Agreement)에 관한 발전 용량 요건을 폐지하는 등 RE100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는바, 이로써 중소기업들도 산업단지 내 유휴 지붕이나 소규모 부지 등을 활용해 생성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핵심기업이 우선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향후 글로벌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RE100 산업단지 입주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RE100 캠페인에 가입되어 있는 국내 36개 주요기업 등을 대상으로 RE100 산업단지 입주를 설득하고 권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산업단지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정부는 아직 RE100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연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관계부처 TF 회의 역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관련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2029년까지 총 1,300억 원을 투자하여 ▲ 신재생 에너지 보급, ▲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소 구축, ▲ 탄소감축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RE100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 산업단지 구축사업과 연계되거나 내용이 유사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시사점 및 유의사항

1. RE100 산업단지 입주 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

RE100 산업단지의 입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후 입지가 정해지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나 추가 보상 요구 등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E100 산업단지 입주를 검토하는 기업은 위와 같은 리스크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RE100을 달성하고자 PPA를 장려하고 있으므로, RE100 산업단지 내에서 PPA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PPA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향후 가격 변동이나 계약 해지 등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에 대한 대응

앞서 보았듯이 정부는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에 관하여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입주 기업들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인센티브 제공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입주 기업들에게 각종 의무(재생에너지 사용 등)가 부과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될 경우 사업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조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정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후 제정안이 확정될 경우에는 주요 조항들을 미리 검토하여 RE100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특실과 법적 리스크를 검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울촌에서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입법 동향 등을 살펴, 입법 진행 경과 및 입법안의 핵심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